

경기도교육청,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지원

‘쌓고 연결하는 교실 속 사고 설계 도구’ 형태로 개발해 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현장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9일부터 10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렸다. 워크숍은 이틀간 총 7개 세션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정책 ▲자율과 주도성 기반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삶의 역량을 함양하는 깊이 있는 수업 ▲학습으로서의 평가 ▲역량 기반 초등 기본학력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및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지역별 현장 밀착 지원 전략 수립 및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했다.

수원특례시, 44개 동 ‘새빛신문고’ 집중 홍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베테랑이간다)’를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44개 동을 방문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베테랑 공무원이 44개 동 통장회의를 찾아가 새빛신문고(베테랑이간다)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민원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통장들의 질문도 받으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9일 세류3동 통장회의에서 첫 홍보를 했고, 4월까지 44개 모든 동을 방문해 통장들을 만나 홍보할 계획이다.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는 2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 통장들이 매주 수요일 각 구청을 찾아가 현장

이와 함께 ▲역량 기반 초등 기본학력 평가 운영 확대 방안 ▲공정성·신뢰성에 기반한 학생평가 운영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체계 등 평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 안내와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워크숍 운영 외에도 학교 현장의 통합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통합 설계 안내서(가이드북)를 비롯해 학교 통합 설계 역량 진단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실천 도구를 보급했다. 또한 학교의 진단 결과에 따라 학교로 찾아가는 3단계 맞춤형 연수를 연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수준과 요구에 맞춘 컨설팅과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지원청과 소통하며 학교가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원시민의 민원 상담 서비스다. 베테랑 공무원이 행정·세무·복지·토목·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준다. 여러 부서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한 번에 처리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44개 동 순회 홍보로 더 많은 시민이 ‘베테랑이간다’를 알게 되길 바란다”며 “베테랑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별한 민원 해결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전달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아람·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

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8.26.)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9.27.) 등 두 가지 방안은 수용했다. 반면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정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송민수 기자

과천시, '통합 암 관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과천시는 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와 회복 단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암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항암치료 중 발생하는 탈모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암 환자 가발 구매비 지원사업’이다. 2021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폐지하며 문턱을 낮췄다. 그 결과 지난해 지원 인원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간 20명으로 확대했다. 상하반기 각 10명씩 나누어 신청받으며, 상반기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 하반기 접수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또 시는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백혈병 치료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성인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연속 3년간 지원한다. 과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항암치료 과정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료 전 단계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겠다”며 “해당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암 관련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보건소 질병관리과(02-2150-38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성파선예전’ 개최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2월 10일 개막, 전시 기간 5월 31일까지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나와 너, 인간과 사물은 하나라는 불교적 깨달음(일체유심조)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조계종 최고 지도자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담은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및 개막식을 개최했다. 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장인 성파 스님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禪) 수행의 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2025년 신작인 옷칠 회화를 중심으로, 스님이 추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300여 명의 종교·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4년 예술의전당 종정예하 특별전에서 축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작품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전을 하게 됐다”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정예하께서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지저분하게 보일 것이고,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언젠가 본 적이 있다”며 “작품을 관람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속의



단의 최고 지도자)으로 추대됐다. 그동안 수행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들을 발표하며 ‘나와 너, 인간과 사물은 하나라는 불교적 깨달음을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옷칠 예술, 도자불상, 그리고 10여 년에 걸쳐 완성한 16만 도자대장경은 스님이 추구한 불교적 철학을 물질과 형태로 구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는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은 휴관한다. 전시 입장은 무료로, 관람객들은 전시마루(지하 1층)에서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다도 등 다양한 연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송민수 기자

경기농협,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청렴·투명 조직문화

범농협 임직원 100여 명 참석…부패 근절·원칙 준수 결의



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경기농협은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점검과 자율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화성특례시·평택해경, 해양안전 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자체·해경 협력 대응 역량 강화에 맞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재명)가 10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화성시의 특례시 승격에 따른 해양 치안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연안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평택해경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으며 성사되었다.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화성지역 해양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화성특례시와 평택해경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음의 핵심 과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



력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평택해양경찰 관계자는 “화성특례시와의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완성하는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소규모 세탁소

대상 친환경 세탁기 보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규모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시·군·구 가운데 용인시가 유일하게 추진한 소규모 세탁소 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지원사업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은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했다. 시는 총 2억 4850만 원(시비 50%, 도비 30%, 자부담 20%)을 투입해 지역 내 소규모 세탁소 5곳에 친환경 세탁기 5대를 설치·보급했다. 지원 대상은 공도와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기존 노후 세탁기를 고효율 친환경 세탁기로 교체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설치된 친환경 세탁기는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처리하는 장비로, 세탁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의 증발을 크게 줄이고 회수·정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양시, 설 연휴 하수도 긴급

출동 24시 특별대책반 운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관련 긴급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출동 24시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24시간 비상 대응반을 편성해 하수도 시설 파손, 역류, 막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5개조 20명 긴급 출동반과 지역별 하수도 연간 단가(유지관리) 계약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응급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하수도 관련 긴급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대책반 운영기간 동안 하수역류 등 하수도관련 불편사항 발생 시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면 된다.

이천시·도암초, 2026년 학교

숲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6일 오전 시청 다목적실에서 도암초등학교와 ‘2026년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중심의 녹색 교육환경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도암초등학교장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도시공원분야 도비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9천만 원(도비 4천5백만 원, 시비 4천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색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이천시가 도암초등학교와 협의해 직접 추진하며, 2026년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성 완료 후에는 학교로 관리 권한을 이관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학교숲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된 만큼,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도암초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광경수 도암초등학교장 또한 “학교숲은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천시와 함께 조성한 학교숲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